

직업능력개발

I. 직업능력개발 정책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간 · 전략산업 분야 기술인력 양성 확대(2013.7.22.)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22일 건설, 기계, 재료 등 기간산업분야와 디자인, 정보통신 등 고부가서비스분야의 기술인력 1만여 명을 양성할 민간훈련기관을 선정 · 발표
 - 국가기간 · 전략산업 분야의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초 정기공모에서 3만여 명(210개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직종 및 정부 부처가 요청한 훈련수요 등을 반영하여 이번에 추가로 선정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력 단절여성 및 50대 중장년층 대상으로 특화과정을 시범 실시하고 기업과 연계한 채용연계형 훈련을 제공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
 - 중장년 · 경력단절여성 대상 시범사업은 성과목표형 훈련과정으로서 취업률 또는 고용유지율 60% 이상 달성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최대 훈련비의 30%까지 지급
- 훈련기간은 4~5개월(최장 12개월)이며, 훈련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훈련 중에 최대 월 4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이 지급됨.
-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및 중장년층 등 비경제활동인구와 취약계층을 많이 참여시켜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할 것임.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해서는 훈련실시 후 취업실적 등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성화하여 훈련기관의 성과 달성을 유인
- 훈련비 현실화, 선지급 활성화, 다년계약 확대 등을 통하여 훈련기관의 경영 안정성 보장 및 훈련의 질을 높여 나갈 예정
 - 훈련기관이 경영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비 선지급을 적극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선지급 시 훈련기관이 납부하는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하(중전 2.118% → 0.375%)하여 훈련기관의 부담을 경감

※ (참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개요

- 목적: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하여 국가 주도의 훈련을 실시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기능인력을 원활히 양성·공급함으로써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에 기여
- 훈련대상: 15세 이상 실업자, 고등학교 및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
-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훈련기관에 지급), 훈련장려금 월 최대 416,000원(훈련생에게 지급)
- 훈련과정
 - 일반훈련과정: 165개 훈련기관의 302개 훈련과정

표 1. 일반훈련과정 현황

(단위: 개, 명)

훈련분야	훈련기관	훈련인원
정보·통신	39	1,622
문화·예술·디자인·방송	55	2,046
기계	61	2,668
재료	12	510
건설	22	840
인쇄 목재 가구 공예	5	135
전기·전자	17	665
환경·에너지·안전	6	178
경영·회계·사무	6	185
섬유·의복	1	30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6	170

주: 분야별로 중복되는 기관 있음.

– 성과목표형 훈련과정: 17개 훈련기관의 19개 훈련과정

표 2. 성과목표형 훈련과정 현황

(단위: 개, 명)

훈련분야	훈련기관	훈련인원
건설	2	60
경영 회계 사무	2	45
기계	1	55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9	244
섬유 의복	1	30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1	30
정보통신	2	64

주: 분야별로 중복되는 기관 있음.

○ 훈련신청: 훈련희망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후 해당 훈련기관에 참여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 HRD 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2013.7.29.)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4박 5일간 인천 부평구에 위

치한 글로벌숙련기술센터에서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공동으로 「국제 HRD 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진행

- ‘국제 HRD 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제 HRD 프로젝트와 ODA 사업 전문가 중, HRD 분야 근무기간·어학성적·국내 및 해외 HRD 프로젝트 경험 등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최종 선발된 총 29명이 참가
- 우리나라 직업훈련정책 및 제도, 국가자격시험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함으로써 특화된 국제 HRD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할 예정
- 교육이수자들에게는 공단과 KOICA ODA 교육원 공동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되며, 향후 이들은 국제 HRD 분야의 전문가로서 두 기관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될 예정
- ‘국제 HRD 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전문화된 교육으로 특화해 나갈 계획
- 산업인력공단은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GIFTS)를 중심으로 국제 HRD 관련 유관기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특화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

□ 여성가족부, 기업맞춤형 및 전문직업훈련과정 확대 지원(2013.8.20.)

- 사업개요: 경력단절여성의 전문기술 습득과 양질의 일자리 취업 강화를 위해 하반기 중 직업 훈련 과정 155개 과정을 추가로 운영하여 3,400여 명에 대해 무료로 지원
- 2013년 하반기에는 그간 여성의 진출이 어려웠던 분야에서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여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기술 과정을

- 하반기 전국 총 17개 과정(350명)으로 확대
- 상반기 시범운영 결과 및 수요를 반영하여 하반기에는 유비쿼터스 실무, 전기·전자 품질검사, 광고그래픽 디자인 등 IT·기술·제조 직종으로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전문 기술 능력을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 폴리텍연계 전문기술과정: 광고그래픽디자인, 기계 CAD & CNC 선반, 중소기업 R&D 기술행정 등 17개 과정
-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올해 처음으로 지원
- 새일센터와 (주)퍼시스, (주)한솔 기업 등이 연계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하며 총 29개 과정으로 운영
 - 기업맞춤형 과정: 자동차 부품조립원((주)우신산업 연계), 무역사무 전문가((주)제니컴, 화동무역 등 연계), 바이럴마케팅실무(공감채널 연계), 약국전산사무원(세무회계사무소 MJIT 연계) 등 29개 과정
-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취업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현장 실습 등이 포함된 심화 과정과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과정, 창업 과정 등을 추가로 개설
- 이번 직업교육 훈련 과정은 추가경정 예산으로 운영되는 무료 과정이며 11월까지 운영
- 기대효과: 기업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폴리텍 대학과 연계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업맞춤형 직업 교육 훈련으로 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여성인력을 양성·배출
- 신청방법: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지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신청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제 구축 방안 발표(2013.8.30.)

-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사업주 단체나 각종 협회 및 조합 등 산업계가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는 체제 마련
- 지역의 산업계, 노동조합, 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중기청,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수요조사 → 공동훈련 → 채용'에 이르는 인력공동관리체계 구축
- 구성된 위원회는 기업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훈련 직종과 규모가 확정되면, 폴리텍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전문대학 등에서 공동으로 훈련 실시
- 이후 지역 고용센터 등을 통해 훈련생 참여기업을 이어줌으로써 채용까지 이르게 할 계획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3 기술대장정' 실시(2013.7.22.)

- 사업개요: '능력'중심의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숙련기술장려사업의 일환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티고 학생들이 전국의 대표 산업현장 탐방하고 기술명장과 교류하는 내용으로 구성
- 2013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 학교 추천과 사연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국의 특성화고·마이스티고 학생 30명이 참여
- '2013 기술대장정팀'은 전국 첨단산업 현장을 돌며 포스코, 두산중공업, 현대위아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적인 강소기업인 명정보기술, 동구기업 등을 탐방할 예정
 - 올해는 대기업 위주의 탐방에서 벗어나 숙련기술만으로 성공한 강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술의 가치를 경험하도록 구성

- 현장의 기술인(대한민국명장, 기능한국인, 2013년 우수숙련기술인 국민스타화 홍보대사, 산업현장 리더, 특성화고 출신 선배 등)과의 만남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가치를 체득하도록 설계

□ 대한민국 명장 증서와 명장패 명의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2013.8.13.)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3년 8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대한민국명장에게 수여하는 증서 및 명장패의 명의가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 기대효과: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명장패 수여로 대한민국명장의 위상이 제고되어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 및 사회의 인식 변화 기대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스펙초월 멘토스쿨」 시범 운영(2013.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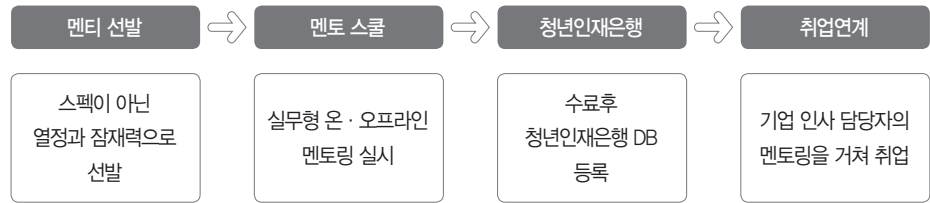
- 사업개요: 스펙은 부족하지만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집중적인 멘토링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 올해는 문화·정보통신 콘텐츠 분야를 위주로 8개 스쿨, 각 30명씩 총 240명을 선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 내년에는 20개 스쿨, 1,000명 등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
-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를 대표 멘토로 정하고 각 스쿨별로 5~6명씩 대표 멘토 외의 실무전문가를 담임멘토로 두어 3~5개월간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맨투맨 방식으로 지도
 - 내년에는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릴 예정

표 3. 2013년 「스펙초월 멘토스쿨」 개설 현황

프로그램명	대표 멘토	과정 내용	담임 멘토	참여 인원
조현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스쿨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JAVA, database 등 소프트웨어를 응용하여 전문 프로그램 인재 양성	6	30
김일호의 캐릭터 스쿨	김일호 (주)오콘 대표 “뽀로로” 개발자	창의력 기반 캐릭터 디자이너 육성	6	30
신수정의 시큐리티 스쿨	신수정 인포섹(주)대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이글 아이” 개발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안 인재 양성	6	30
정국현의 산업디자인 스쿨	정국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총감독 삼성디자인학교학장	포트폴리오 제작, 시장조사, 프로젝트 개발 등 다양한 주제 실습을 통한 산업디자이너 양성	6	30
양병선의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쿨	양병선 유비벨로스(주)사장 12년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다양한 스마트기기용 임베디드 SW 개발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양성	6	30
명승은의 스마트앱 개발 스쿨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 정부지적 엑셀러레이팅 프로젝트	스마트 웹&앱 프로그래밍 개발 인재양성	6	30
이경일의 모바일게임 스쿨	이경일 (주)게임빌 이사 게임산업협회 모바일 분과위원	모바일 게임 기획, 개발, 마케팅까지 게임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 양성	6	30 (모집중)
민효기의 빅데이터 스쿨	민효기 한국 오라클 상무	신규분야 빅데이터 관리 등 관련기술 전문가 양성	6	30 (모집중)

- 멘토링 기간 중 청년에게 월 20~30만 원의 역량개발 지원금 지원
- 멘토스쿨을 수료한 청년은 청년인재은행 DB에 등록된 후 기업 인사 담당자의 멘토링 등을 추가로 받아 취업

그림 1. 스펙초월 멘토스쿨 취업 프로세스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3년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자와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선정 및 발표(2013.8.29.)

- 대한민국명장은 23개 직종에서 총 23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명패, 휘장 수여 및 일시장려금 2천만 원 지급
- 숙련기술자는 4명이 선정되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증서 및 숙련기술전수지원금 지급
- 우수숙련기술자는 50명이 선정되었으며, 고용노동부장관 명의 증서와 일시장려금 200만 원 수여
-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로 ‘(주)에이치에스엘일렉트로닉스’가 선정되었으며, 숙련기술장려모범상버체 명판과 함께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의 혜택 부여

※ 대한민국명장 선정 등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제도

- 목적: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공헌한 사람을 선정 및 우대,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선정 개요: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매년 35명 이내로 선정

표 4. 우수 숙련기술인 및 숙련기술장려모범업체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구분	자격요건	선정기준
대한민국 명장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산업현장 동일분야(고시 각종)에서 15년 이상 직접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능경기대회 입상 및 자격취득 실적 등 - 특히, 업무개선, 서적 및 논문, 매뉴얼 개발 실적 등 - 대외 활동 실적 - 사회봉사 활동 실적 - 면접 등 종합평가
숙련기술 전수자	다음 종목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 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 1. 제조업의 기반 분야(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2. 산업현장에서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3. 세대 간에 단절될 우려가 있어서 전수가 필요한 분야	- 전수자 및 전수대상자 평가(숙련기술 보유 정도) - 전수환경의 적정성 및 전수교육계획의 타당성 - 기술전수의 필요성 - 전수대상자의 전수 여건 - 면접 등 종합평가
우수숙련 기술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한민국명장 선정직종 중에서 숙련기술장려 사업의 취지 및 산업 동향을 고려하여 선정 -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하여 선정	- 기능경기대회 입상 및 자격취득 실적 - 업무개선, 서적 및 논문, 매뉴얼 개발 실적 등 - 면접 등 종합평가
숙련기술 장려모범 사업체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중에서 선정 1.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2.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3.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등	- 숙련기술인 우대제도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배출 실적 등

○ 지원내용

- 대한민국명장: 일시장려금 2,000만 원, 매년 계속종사장려금 167~357만 원, 명장 증서 및 휘장수여, 명패제작 수여, 국외산업시찰
-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전수지원금(전수자:월 80만 원, 전수대상자: 월 20만 원),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수여
- 우수숙련기술자:일시장려금 200만 원, 우수숙련기술자증서 수여

-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명판 수여, 정기근로감독 명제(3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 산업현장교수단 활용한 HRD 종합서비스 우선지원, 언론홍보(기획보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스리랑카 장애인 직업훈련 관계자 초청연수 실시(2013.7.8.)**

- 사업개요: 정부의 스리랑카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수행하는 연수사업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실시 예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스리랑카 장애인 직업훈련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2주간 공단 본부에서 장애인 직업훈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초청연수 실시
- 연수내용
 - 일산에 소재한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을 방문하여 직업훈련과정 체험
 - 현대자동차, 포스코, 포스코휴먼스 등 한국의 대표 기업과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방문하여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과 제도, 직업훈련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수 실시

□ **여성가족부,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실시(2013.8.22.)**

- 사업개요: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일환으로, 각국에서 여성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올해 2차레에 걸쳐 초청하여(22개국 43명)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
- ‘2013년도 제1차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은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2013년도 제2차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실시 예정

- 네팔,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독립국가연합(CIS) 12개국 23명의 여성관련 정책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

○ 훈련 내용

- 아시아 등 12개국 참가자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한국형 여성일자리 모델인 새로일하기센터 사례를 연구
- 농업이 주산업인 참가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북 고창, 완주, 전주를 방문하여 고창 베리 영농사업 등 지역특화산업 개발전략, 지역여성인력개발과 소득 창출 사례 탐방 예정
- 저개발국의 주력 산업이 섬유 분야임을 착안하여 섬유 산업지역인 대구를 방문, 여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현황을 알아보고 가족친화기업 등을 둘러볼 예정

- 기대효과: 한국의 여성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과 지역여성인력 프로그램의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여 개도국 여성의 역량강화와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폴리텍대학, '9월 직업능력의 달' 행사 개최(2013.8.29.)

- 일과 학습의 연계로 산업현장이 배움터가 되어 누구나 직업능력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능력중심사회를 앞당기는데 초점을 두고 행사 개최
-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숙련기술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숙련기술인에 증서를 수여하는 자리 마련
- '제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9.4.~9.6.)'
 - 국내외 HRD 관계자들과 함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최근 동향 및 우수 사례를 공유

-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주제 아래 ‘HRD 기반의 희망과 행복찾기’라는 슬로건으로 행복, 혁신, 운명, 가치를 키워드로 하는 주제로 구성
- ‘직업능력개발세미나(9.4.)’·‘우수교육훈련프로그램 경진대회(9.5.)’·‘체계적 현장훈련 우수사례 발표회(9.6.)’·‘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9.12.)’: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이슈 진단 및 정책 대한 도출과 기업의 우수사례 소개하고 공유
-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9.30.~10.7.)’
 -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4개 도시에서 개최되며 1,884명의 선수들과 17,000여 명의 관계자가 참가하여 게임개발, 애니메이션, 자동차 정비, 실내장식 등 48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
- ‘미래 내모습 그리기 대회’·‘Young Skill 올림피아드 경연대회’·‘기능경기 꿈나무 견학프로그램’, ‘기술꿈나무 직업체험 캠프’: 유아와 초중등 학생들에게 직업과 기술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마련
- ‘토크 콘서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학생과 학부모,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숙련기술인 국민스타, 대한민국명장, 기업 관계자 등이 모여 능력중심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토크 콘서트 9월 중에 열릴 예정

II. 직업능력개발 통계

◆ 2012년 4사분기 지역별 교육훈련참여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 2012년 4사분기 원자료)

〈만 15세 이상 전체〉

□ 2012년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30.7%로 전년 대비

3.2%p 증가

- 성별로는 남성(35.0%)이 여성(26.4%)보다 교육훈련 참여 비중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15~29세(46.2%),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44.2%)의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음.
- 인적 속성별로 증감률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3.3%p), 연령별로는 15~29세(5.3%p),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3.7%p)가 다른 집단보다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함.
-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가 36.4%로 전년 대비 2.7%p 증가하였고, 실업자는 24.0%로 2.4%p, 비경제활동인구는 22.6%로 3.9%p로 증가함.

□ 교육훈련 참여자의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은 '직장연수, 기관(단체) 주관 직업훈련'(64.4%)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자기 주도 학습'(14.0%), 학원수강(13.9%), 교양강좌(6.9%)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직장 연수 등(72.0%)이 주된 교육훈련 방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직장 연수(54.6%) 외에 자기주도학습(15.6%), 학원수강(15.9%), 교양강좌(12.9%)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음.
 - 중졸 이하는 학원수강(36.2%)의 비중이 가장 큼.
-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의 경우 직장연수 등이 8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실업자는 직장연수 등(38.8%) 외에 자기주도 학습(31.7%)과 학원수강(23.0%)의 비중이 높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학원수강(40.3%)과 자기주도학습(32.7%)의 비중이 높음.

표 5. 15세 이상 인구의 인적속성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교육 참여 비중	교육 참여 비중 (A)	교육 참여							
			비중 (B)	증감 (B-A)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기 타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 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전체	25.2	27.5	30.7	3.2	64.4	14.0	13.9	6.9	0.8	
성별	남자	29.4	32.1	35.0	2.9	72.0	12.8	12.3	2.1	0.7
	여자	21.2	23.1	26.4	3.3	54.6	15.6	15.9	12.9	1.0
연령	15~29세	35.7	40.9	46.2	5.3	30.4	30.2	36.1	1.6	1.8
	30대	30.5	32.4	35.6	3.2	81.4	8.3	3.8	6.3	0.2
	40대	27.8	29.3	32.3	3.0	84.8	5.7	2.0	7.2	0.3
	50대	20.8	22.8	25.1	2.3	85.8	3.0	1.3	9.4	0.5
	60세 이상	8.0	9.3	11.6	2.3	69.9	2.2	0.8	26.7	0.5
학력	중졸 이하	17.2	20.8	24.5	3.7	32.1	22.3	36.2	6.8	2.6
	고졸	21.8	23.0	25.7	2.7	66.5	14.2	10.8	8.0	0.4
	전문대졸	32.2	34.2	36.3	2.1	80.7	7.4	5.1	6.6	0.3
	대졸 이상	39.6	41.3	44.2	2.9	79.2	10.3	4.3	5.9	0.3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31.7	33.7	36.4	2.7	89.0	5.7	2.5	2.5	0.3
	실업자	21.7	21.6	24.0	2.4	38.8	31.7	23.0	6.0	0.6
	비경활	16.0	18.7	22.6	3.9	7.6	32.7	40.3	17.2	2.2

주: 1) 주된 교육훈련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지역별로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이 51.2%로 가장 높고, 서울이 21.6%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광주가 9.3%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전은 -5.7%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6. 15세 이상 인구의 지역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교육 참여 비중	교육 참여 비중 (A)	교육 참여							
			비중 (B)	증감 (B-A)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 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기타				
전체	25.2	27.5	30.7	3.2	64.4	14.0	13.9	6.9	0.8	
지역	서울	18.4	21.2	21.6	0.4	52.0	16.8	23.8	7.0	0.3
	부산	27.2	31.3	37.5	6.2	65.0	15.5	12.0	7.1	0.3
	대구	32.0	31.6	30.3	-1.3	61.1	12.1	16.9	7.9	2.0
	인천	29.5	20.9	24.4	3.5	57.1	18.5	16.2	8.0	0.3
	광주	13.1	26.4	35.7	9.3	63.2	16.6	14.4	5.6	0.2
	대전	20.6	40.7	35.0	-5.7	71.0	12.0	10.1	6.6	0.2
	울산	46.7	45.6	51.2	5.6	75.6	7.3	11.2	5.7	0.2
	경기	27.2	27.4	31.1	3.7	62.5	15.0	14.5	7.3	0.7
	강원	23.0	25.3	32.9	7.6	73.2	10.7	8.6	7.2	0.3
	충북	30.2	32.8	40.9	8.1	71.8	11.2	8.4	7.0	1.5
	충남	30.4	34.4	42.9	8.5	78.6	8.8	7.4	4.6	0.6
	전북	25.2	29.9	33.4	3.5	62.2	10.1	14.9	8.2	4.5
	전남	19.5	25.9	28.6	2.7	67.5	14.6	9.6	6.5	1.8
	경북	30.8	30.1	35.5	5.4	73.1	12.6	7.9	5.9	0.5
	경남	20.2	24.6	24.6	0.0	63.4	17.0	11.7	6.6	1.3
	제주	41.8	37.8	40.6	2.8	71.2	11.6	9.2	5.6	2.5

주: 1) 주된 교육훈련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2012년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은 20.7%로 전년 대비 1.6%p 증가

- 성별로는 남성이 26.0%로 전년 대비 1.8%p, 연령별로는 40대가 28.3%로 2.6%p,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37.5%로 2.2%p 증가

-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가 33.2%로 전년 대비 2.6%p, 실업자는 15.3%로 1.4%p, 비경제활동인구는 2.7%로 0.3%p 증가

표 7. 15세 이상 인구의 인적속성별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

(단위: %, %p, 전년 대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 감
전 체		17.8	19.1	20.7	1.6
성별	남자	22.0	24.2	26.0	1.8
	여자	13.8	14.2	15.6	1.4
연령	15~29세	15.8	15.5	16.0	0.5
	30대	25.7	28.1	30.6	2.5
	40대	24.0	25.7	28.3	2.6
	50대	17.6	20.0	21.7	1.7
	60세 이상	5.6	6.6	8.1	1.5
학력	중졸 이하	6.5	6.8	7.8	1.0
	고졸	16.1	16.5	17.8	1.3
	전문대졸	27.3	29.8	30.9	1.1
	대졸 이상	32.9	35.3	37.5	2.2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28.0	30.6	33.2	2.6
	실업자	15.1	13.9	15.3	1.4
	비경활	3.1	2.4	2.7	0.3

자료: 통계청(각 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지역별로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이 39.3%로 가장 높고, 서울이 12.8%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충남이 7.5%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전이 -3.0%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8. 15세 이상 인구의 지역별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

(단위: %, %p, 전년 대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 감
전 체		17.8	19.1	20.7	1.6
지역	서울	12.0	12.5	12.8	0.3
	부산	19.0	22.1	26.1	4.0
	대구	21.1	21.0	19.4	-1.6
	인천	22.0	13.1	15.1	2.0
	광주	10.3	15.3	24.4	9.1
	대전	15.8	28.8	25.8	-3.0
	울산	36.6	35.0	39.3	4.3
	경기	19.1	18.8	20.6	1.8
	강원	17.8	20.3	24.8	4.5
	충북	24.0	25.7	29.4	3.7
	충남	25.0	27.0	34.5	7.5
	전북	10.6	22.6	21.0	-1.6
	전남	13.9	18.9	19.5	0.6
	경북	23.7	22.8	24.1	1.3
	경남	13.6	17.7	16.5	-1.2
	제주	32.6	28.7	30.3	1.6

자료: 통계청(각 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

□ 2012년 취업자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36.4%로 전년 대비 2.7%p 증가

- 인적 속성별로 교육훈련 참여비중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37.9%), 연령별로는 30대(43.1%),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51.6%)이 다른 집단보다 높음.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52.6%로 가장 높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7.1%), 임시근로자(26.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4.0%)의 순으로 나타남.

- 교육훈련 참여자의 주된 교육훈련 방법으로는 '직장연수, 기관(단체) 주관 직업훈련'이 89.0%를 차지
 - 일용근로자는 학원수강(20.4%)과 자기 주도 학습(17.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무급가족종사자는 교양강좌(19.9%)의 비중이 높음.

표 9. 취업자의 인적속성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교육 참여 비중	교육 참여 비중 (A)	비중 (B)	증감 (B-A)	교육 참여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 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기 타	
전체	31.7	33.7	36.4	2.7	89.0	5.7	2.5	2.5	0.3	
성별	남자	33.1	35.5	37.9	4.2	92.0	4.7	1.8	1.2	0.2
	여자	29.7	31.1	34.2	-1.3	84.3	7.3	3.5	4.5	0.4
연령	15~29세	37.7	39.5	41.8	10.7	79.1	11.2	8.1	1.2	0.3
	30대	37.5	40.2	43.1	3.6	89.7	6.2	2.0	1.8	0.2
	40대	32.8	34.4	37.6	-2.6	91.0	5.0	1.2	2.6	0.3
	50대	26.4	28.9	31.3	-3.1	93.1	2.6	0.7	3.2	0.4
	60세 이상	16.5	19.0	22.5	-6.4	91.9	1.5	0.2	6.2	0.3
학력	중졸 이하	16.7	18.7	21.6	2.6	91.3	2.0	2.1	3.9	0.6
	고졸	26.5	27.7	29.8	11.1	89.4	4.6	3.0	2.6	0.3
	전문대졸	38.1	40.4	42.3	14.6	89.2	5.7	2.8	2.0	0.2
	대졸 이상	46.6	48.6	51.6	11.2	88.1	7.5	2.0	2.2	0.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5.0	47.1	52.6	4.0	93.0	4.3	1.5	1.0	0.2
	임시근로자	26.3	27.5	26.6	-20.5	79.3	10.0	5.6	4.8	0.4
	일용근로자	11.3	11.4	9.8	-17.7	54.4	17.1	20.4	7.2	0.9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20.9	22.4	27.1	15.7	88.1	6.6	1.4	3.4	0.6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18.4	20.7	24.0	1.6	86.5	6.4	1.7	5.0	0.5
	무급가족 종사자	8.6	10.2	10.6	-10.1	64.2	9.7	4.9	19.9	1.4

주: 1) 주된 교육훈련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지역별로 취업자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이 65.2%로 가장 높고, 서울이 23.3%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광주가 13.7%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전은 -5.5%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10. 취업자의 지역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교육 참여 비중	교육 참여 비중 (A)	비중 (B)	증감 (B-A)	교육 참여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 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기 타	
전체	31.7	33.7	36.4	2.7	89.0	5.7	2.5	2.5	0.3	
지역	서울	21.9	23.1	23.3	0.2	78.7	11.4	6.3	3.4	0.2
	부산	33.9	39.3	46.4	7.1	88.7	6.6	2.2	2.1	0.3
	대구	36.3	36.3	33.3	-3.0	91.4	3.8	2.3	2.1	0.4
	인천	36.1	22.4	26.0	3.6	84.6	7.8	3.6	3.9	0.1
	광주	18.4	29.9	43.6	13.7	89.6	5.8	2.3	2.0	0.3
	대전	29.3	51.3	45.8	-5.5	90.6	4.0	2.5	2.8	0.1
	울산	59.7	59.0	65.2	6.2	97.4	1.2	0.6	0.8	0.0
	경기	33.9	33.4	35.6	2.2	88.6	6.1	2.7	2.4	0.2
	강원	32.9	37.1	44.4	7.3	92.4	3.9	1.5	2.1	0.1
	충북	41.5	45.9	54.2	8.3	93.9	3.6	0.4	1.7	0.4
	충남	42.4	46.4	56.9	10.5	96.2	1.8	0.7	1.2	0.2
	전북	33.2	40.7	40.2	-0.5	90.7	3.3	1.3	2.8	1.9
	전남	25.0	32.9	34.1	1.2	90.3	4.9	0.8	3.5	0.4
	경북	39.8	39.8	44.8	5.0	92.5	4.0	0.8	2.4	0.3
	경남	24.1	30.9	29.6	-1.3	88.9	5.7	1.9	3.1	0.4
	제주	48.1	43.2	47.3	4.1	89.2	5.1	1.7	3.9	0.1

주: 1) 주된 교육훈련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2012년 취업자의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은 33.2%로 전년 대비 2.6%p 증가

- 인적 속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35.4%), 연령별로는 30대(40.0%),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47.4%)이 다른 집단보다 높음.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49.6%로 가장 높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4.6%), 임시근로자(22.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1.3%)의 순으로 나타남.

표 11. 취업자의 인적속성별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

(단위: %, %p, 전년 대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
전체		28.0	30.6	33.2	2.6
성별	남자	29.6	32.8	35.4	2.6
	여자	25.8	27.4	30.1	2.7
연령	15~29세	31.5	33.3	34.9	1.6
	30대	33.3	37.0	40.0	3.0
	40대	29.6	31.7	35.1	3.4
	50대	23.9	26.7	29.1	2.4
	60세 이상	14.6	17.5	20.6	3.1
학력	중졸 이하	14.9	17.0	19.4	2.4
	고졸	23.5	24.9	27.0	2.1
	전문대졸	33.8	37.2	38.8	1.6
	대졸 이상	40.9	44.2	47.4	3.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0.4	43.7	49.6	5.9
	임시근로자	22.4	23.7	22.7	-1.0
	일용근로자	8.5	7.6	5.8	-1.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8.6	20.2	24.6	4.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6.0	18.6	21.3	2.7
	무급가족 종사자	6.6	7.9	7.1	-0.8

자료: 통계청(각 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지역별로 취업자의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이 63.4%로 가장 높고, 서울이 19.9%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광주가 15.6%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전은 -5.1%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12. 취업자의 지역별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

(단위: %, %p, 전년 대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 감	
전체	28.0	30.6	33.2	2.6	
지역	서울	18.0	19.1	19.9	0.8
	부산	31.7	37.0	43.4	6.4
	대구	33.4	33.5	31.0	-2.5
	인천	33.1	19.7	23.1	3.4
	광주	16.4	24.9	40.5	15.6
	대전	26.4	47.4	42.3	-5.1
	울산	58.0	56.9	63.4	6.5
	경기	30.0	30.2	32.8	2.6
	강원	30.6	35.0	41.7	6.7
	충북	38.4	43.8	50.0	6.2
	충남	40.7	44.3	55.5	11.2
	전북	17.1	38.2	36.6	-1.6
	전남	21.5	29.9	30.5	0.6
	경북	36.4	36.4	38.3	1.9
	경남	21.1	28.1	27.2	-0.9
	제주	46.2	40.4	43.3	2.9

자료: 통계청(각 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임금근로자〉

□ 2012년 임금근로자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41.6%로 전년 대비 2.1%p 증가

- 인적 속성별로 교육훈련 참여비중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43.8%), 연령별로는 30대(47.1%),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57.6%)이 다른 집단보다 높음.

- 교육훈련 참여자의 주된 교육훈련 방법으로는 '직장연수, 기관(단체) 주관 직업훈련'이 89.8%를 차지

표 13. 임금근로자의 인적속성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교육 참여 비중	교육 참여 비중 (A)	비중 (B)	증감 (B-A)	교육 참여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 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기타	
전체	37.7	39.5	41.6	2.1	89.8	5.5	2.6	1.8	0.2	
성별	남자	39.1	41.6	43.8	2.2	92.4	4.7	2.0	0.8	0.2
	여자	35.7	36.5	38.7	2.2	86.0	6.8	3.6	3.3	0.3
연령	15~29세	38.9	40.9	42.9	2.0	80.3	10.4	7.8	1.1	0.3
	30대	41.5	44.0	47.1	3.1	90.9	5.6	1.9	1.5	0.1
	40대	39.7	40.8	43.9	3.1	92.3	4.5	1.0	2.0	0.2
	50대	33.2	35.4	36.9	1.5	94.5	2.2	0.7	2.2	0.3
	60세 이상	19.1	20.9	22.5	1.6	92.3	2.1	0.4	5.0	0.3
학력	중졸 이하	18.3	19.7	21.4	1.7	90.1	2.9	3.5	2.8	0.7
	고졸	30.7	31.7	33.5	1.8	89.6	4.9	3.3	2.0	0.3
	전문대졸	42.0	44.2	46.3	2.1	90.2	5.1	2.9	1.6	0.2
	대졸 이상	52.7	54.7	57.6	2.9	89.8	6.6	1.9	1.6	0.1

주: 1) 주된 교육훈련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지역별로 임금근로자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이 72.4%로 가장 높고, 서울이 27.3%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광주는 16.0%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전북은 -6.5%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14. 임금근로자의 지역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교육 참여 비중	교육 참여 비중 (A)	교육 참여							
			비중 (B)	증감 (B-A)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기타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 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기타	
전체	37.7	39.5	41.6	2.1	89.8	5.5	2.6	1.8	0.2	
지역	서울	26.0	27.8	27.3	-0.5	21.8	2.9	1.7	0.8	0.0
	부산	39.0	44.3	52.9	8.6	47.5	3.1	1.3	0.8	0.2
	대구	42.7	41.5	38.0	-3.5	35.0	1.4	0.7	0.6	0.1
	인천	41.5	26.0	30.3	4.3	26.1	2.2	1.0	1.0	0.0
	광주	22.6	36.9	52.9	16.0	47.7	2.9	1.2	1.0	0.2
	대전	35.3	57.5	52.4	-5.1	47.9	2.0	1.3	1.1	0.0
	울산	66.4	66.3	72.4	6.1	70.8	0.8	0.4	0.4	0.0
	경기	39.3	38.6	40.5	1.9	36.4	2.2	1.1	0.7	0.0
	강원	40.6	45.3	51.4	6.1	47.9	2.0	0.8	0.6	0.0
	충북	48.5	52.8	62.3	9.5	59.3	2.0	0.3	0.5	0.2
	충남	52.5	54.7	66.1	11.4	64.1	1.0	0.5	0.4	0.1
	전북	42.9	54.1	47.6	-6.5	43.7	1.6	0.8	0.9	0.6
	전남	35.8	46.8	41.4	-5.4	37.2	2.6	0.5	0.9	0.2
	경북	50.7	48.8	52.1	3.3	48.4	2.3	0.5	0.9	0.1
	경남	31.0	37.4	33.8	-3.6	30.3	2.1	0.6	0.7	0.1
	제주	58.4	47.9	52.6	4.7	47.1	3.2	1.2	1.1	0.1

주: 1) 주된 교육훈련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산업별로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73.3%로 가장 높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72.6%), ‘금융 및 보험업’(70.0%)의 순임.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광업’이 10.0%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0.4%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15.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교육 참여 비중	교육 참여 비중 (A)	교육 참여						
			비중 (B)	증감 (B-A)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 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기타			
전체	37.7	39.5	41.6	2.1	89.8	5.5	2.6	1.8	0.2
농업, 임업 및 어업	11.0	18.0	18.9	0.9	88.7	3.2	1.7	6.3	0.0
광업	38.4	41.6	51.6	10.0	95.3	3.5	1.1	0.1	0.0
제조업	34.9	37.9	40.9	3.0	95.3	2.4	1.1	0.9	0.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8.9	71.4	72.6	1.2	96.0	1.7	1.7	0.5	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6.5	36.8	41.0	4.2	96.1	3.2	0.4	0.4	0.0
건설업	20.2	22.2	22.1	-0.1	93.1	3.7	1.9	0.9	0.3
도매 및 소매업	26.3	27.4	29.5	2.1	84.7	7.9	4.5	2.4	0.5
운수업	43.8	44.7	46.2	1.5	94.6	3.4	1.3	0.5	0.2
숙박 및 음식점업	17.9	17.7	18.5	0.8	65.4	14.3	16.8	3.1	0.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3.3	48.4	48.2	-0.2	86.7	8.4	4.1	0.7	0.0
금융 및 보험업	64.8	66.8	70.0	3.2	95.3	3.0	1.0	0.7	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8	23.5	27.2	3.7	87.1	6.2	4.0	2.7	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2.7	44.9	49.6	4.7	87.6	7.5	3.5	1.2	0.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9.6	30.6	33.8	3.2	91.9	3.7	2.8	1.6	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8.0	71.2	73.3	2.1	94.0	3.3	0.9	1.7	0.1
교육 서비스	56.6	57.8	59.6	1.8	85.8	9.5	2.1	2.6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9.3	52.5	54.2	1.7	88.5	5.2	2.2	3.8	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1	33.9	33.5	-0.4	75.9	16.6	5.8	1.7	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31.4	31.5	34.4	2.9	83.6	8.8	3.9	3.3	0.4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5.0	3.0	3.8	0.8	32.6	0.0	0.0	56.3	11.2
국제 및 외국기관	27.2	41.1	45.8	4.7	97.9	2.1	0.0	0.0	0.0

주: 1) 주된 교육훈련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직업별로 살펴보면, 관리자가 57.3%로 가장 높고, 단순노무종사자가 18.3%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관리자가 7.0%p로 가장 많이 증가

표 16.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교육 참여 비중	교육 참여 비중 (A)	교육 참여						
			비중 (B)	증감 (B-A)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 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기 타
전 체	37.7	39.5	41.6	2.1	89.8	5.5	2.6	1.8	0.2
관리자	59.4	50.3	57.3	7.0	94.0	3.2	1.6	1.3	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1.1	53.6	56.7	3.1	87.8	7.7	2.4	2.0	0.2
사무 종사자	47.0	47.7	50.4	2.7	89.5	6.3	2.4	1.7	0.2
서비스 종사자	33.9	33.4	35.0	1.6	84.2	6.1	7.1	2.4	0.2
판매 종사자	33.3	34.6	37.4	2.8	87.4	6.0	4.2	1.9	0.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9.3	26.8	28.6	1.8	97.4	1.9	0.1	0.5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4.2	27.4	29.2	1.8	95.1	2.7	1.0	1.0	0.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7.6	41.0	43.5	2.5	96.9	1.4	0.8	0.6	0.3
단순노무 종사자	15.5	17.1	18.3	1.2	89.5	3.2	2.8	4.1	0.5

주: 1) 주된 교육훈련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2012년 임금근로자의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은 38.2%로 전년 대비 2.3%p 증가

- 인적 속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41.0%), 연령별로는 30대(44.0%),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53.4%)이 다른 집단보다 높음.

표 17. 임금근로자의 인적속성별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

(단위: %, %p, 전년 대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 감
전체		33.4	35.9	38.2	2.3
성별	남자	34.9	38.5	41.0	2.5
	여자	31.3	32.4	34.6	2.2
연령	15~29세	32.7	34.7	36.2	1.5
	30대	37.0	40.8	44.0	3.2
	40대	36.0	37.7	41.4	3.7
	50대	30.2	33.0	34.8	1.8
	60세 이상	17.2	19.4	21.0	1.6
학력	중졸 이하	16.4	17.7	19.1	1.4
	고졸	27.3	28.5	30.6	2.1
	전문대졸	37.5	41.0	42.8	1.8
	대졸 이상	46.5	50.0	53.4	3.4

자료: 통계청(각 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지역별로 임금근로자의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이 70.7%로 가장 높고, 서울이 23.5%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광주가 18.1%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전북은 -7.4%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18. 임금근로자의 지역별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

(단위: %, %p, 전년 대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
전체		33.4	35.9	38.2	2.3
지역	서울	21.6	23.1	23.5	0.4
	부산	36.6	41.8	49.8	8.0
	대구	39.7	38.5	35.4	-3.1
	인천	38.1	23.0	27.4	4.4
	광주	20.2	31.0	49.1	18.1
	대전	31.8	53.2	48.6	-4.6
	울산	64.8	64.6	70.7	6.1
	경기	34.8	35.2	37.6	2.4
	강원	38.0	43.1	48.5	5.4
지역	충북	45.0	50.5	58.2	7.7
	충남	50.5	52.4	64.9	12.5
	전북	20.7	51.1	43.7	-7.4
	전남	31.4	42.5	37.4	-5.1
	경북	46.5	45.1	45.1	0.0
	경남	27.3	34.5	31.2	-3.3
	제주	56.0	45.1	48.7	3.6

자료: 통계청(각 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이 6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8.9%), ‘금융 및 보험업’(67.1%) 순임.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광업’이 12.1%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0.7%p)만 감소함.

표 19.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

(단위: %, %p, 전년 대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
전체	33.4	35.9	38.2	2.3
농업, 임업 및 어업	9.4	16.0	16.9	0.9
광업	35.4	38.8	50.9	12.1
제조업	31.7	35.7	38.7	3.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62.5	65.5	69.0	3.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2.2	34.5	40.2	5.7
건설업	18.0	20.5	21.1	0.6
도매 및 소매업	22.3	24.0	25.5	1.5
운수업	39.9	42.5	44.1	1.6
숙박 및 음식점업	13.7	12.8	13.5	0.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7.0	43.6	44.4	0.8
금융 및 보험업	58.3	62.0	67.1	5.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6	21.6	25.3	3.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9	40.3	45.2	4.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8	28.1	31.0	2.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1.3	66.0	68.9	2.9
교육 서비스	49.6	51.5	54.1	2.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5	48.4	50.3	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7	27.5	26.8	-0.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27.8	28.4	31.3	2.9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4.3	1.4	2.0	0.6
국제 및 외국기관	26.6	39.8	44.5	4.7

자료: 통계청(각 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직업별로 살펴보면, 관리자가 54.1%로 가장 높고, 단순노무종사자가 16.4%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관리자가 7.3%p로 가장 많이 증가함.

표 20.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

(단위: %, %p, 전년 대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
전체	33.4	35.9	38.2	2.3
관리자	53.6	46.8	54.1	7.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1	48.7	52.4	3.7
사무 종사자	40.8	43.0	46.0	3.0
서비스 종사자	30.1	28.9	30.7	1.8
판매 종사자	29.1	31.0	33.0	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7.2	24.9	27.5	2.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2.4	25.9	27.9	2.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4.8	39.2	42.0	2.8
단순노무 종사자	13.9	15.1	16.4	1.3

자료: 통계청(각 연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설문 문항〉

- 조사 목적
 - －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 제공
 - － 시·도별 고용구조 분석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제공
- 조사대상: 조사대상주간에 국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를 모집단으로 하며, 전국 약 174,000가구의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주기: 매분기
- 교육훈련 관련 설문 문항: 매4사분기 조사에서 아래 문항 포함

[2012년 4사분기 설문 문항]

※ 만 15세 이상 모두 작성

28. 2012년 1년 동안(1.1~12.31) 다음의 교육훈련에 참여(연말까지 계획된 경우 포함)한 적이 있습니까?(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정규학교 교육과정 제외)

- ① 있다(주된 것 2가지까지 선택) (), () ② 없다
- ① 직장연수, 기관(단체) 주관 직업훈련(영농교육 포함)
 - ②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자기 주도 학습
 - ③ 학원수강
 - ④ 교양강좌(대학평생교육원, 복지관, 시민회관, 문화센터 등)
 - ⑤ 기타 ()

→ 28-1. 참여한 교육훈련이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 고용노동부, 2012년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 2012 회계연도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는 2만 8천 원으로 전년 2만 7천 원보다 1.8% 증가(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대상)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48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
 - 이 중 직접노동비용은 347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 간접노동비용은 101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

표 21.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단위: 천 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액	(%)	액	(%)	액	(%)	
노동비용총액	4,021.5	(100.0)	4,328.5	(100.0)	4,487.3	(100.0)	3.7
직접노동비용	3,165.5	(78.7)	3,331.6	(77.0)	3,475.9	(77.5)	4.3
간접노동비용	856.0	(21.3)	996.8	(23.0)	1,011.4	(22.5)	1.5
퇴직급여	383.3	(9.5)	480.3	(11.1)	470.7	(10.5)	-2.0
법정복지비	266.7	(6.6)	280.1	(6.5)	296.8	(6.6)	6.0
법정외복지비	169.3	(4.2)	195.5	(4.5)	201.8	(4.5)	3.2
교육훈련비	24.5	(0.6)	27.2	(0.6)	27.7	(0.6)	1.8
기타	12.2	(0.3)	13.6	(0.3)	14.5	(0.4)	6.6

주: 1) ()는 구성비임.

2) 기타는 현물지급비용, 채용관련비용, 사보제작, 표창,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의 비용임.

자료: 고용노동부(2013.8), “201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

□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는 300인 이상 기업의 16.0% 수준

-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는 8천 3백 원이며, 300인 이상 기업은 5만 3천 원임.
 - 10~29인 기업은 3천7백 원인데 반해 1,000인 이상 기업은 6만 6천 원이어서 교육훈련비는 규모가 클수록 높아짐.

표 22. 기업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

(단위: 천 원, %)

구분	노동비용 총액			교육훈련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규모	4,021.5	4,328.5	4,487.3	24.5	27.2	27.7
300인 미만 (A)	3,121.5	3,380.6	3,569.7	7.8	7.6	8.3
10~29인	2,860.3	3,090.2	3,199.7	4.6	3.8	3.7
30~99인	3,133.2	3,401.6	3,619.5	7.4	7.2	8.4
100~299인	3,342.9	3,636.2	3,879.9	11.1	11.8	12.7
300인 이상 (B)	5,168.7	5,563.1	5,640.1	45.8	52.7	52.0
300~499인	3,880.3	4,264.4	4,304.5	19.9	21.8	20.8
500~999인	4,264.9	4,318.4	4,268.7	19.4	23.9	23.1
1,000인 이상	5,713.2	6,177.1	6,261.5	59.0	67.0	65.7
A/B*100	60.4	60.8	63.3	17.0	14.4	16.0

자료: 고용노동부(2013.8), “201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노동비용의 실태를 파악하여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 3,366개
- 조사기준: 2012 회계연도
- 용어설명
 - ▶ 노동비용: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금액으로 직접노동비용과 간접노동비용으로 구성
 - ▶ 직접노동비용: 정액급여·초과급여, 성과·상여금 등 현금급여
 - ▶ 간접노동비용: 퇴직급여,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 고용보험 동향

□ 2013년 7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166만4천 개소로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

- 피보험자는 1,14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
- 성별로는 남자는 690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로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452만 8천 명으로 5.8% 증가

표 23.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단위: 개소, 명, 건, %)

구분	2012.7	2013.6		2013.7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사업장	1,555,833	1,661,516	1,664,148	108,315	7.0	2,632	0.2
○피보험자(순수)	10,970,725	11,421,300	11,432,576	461,851	4.2	11,276	0.1
남 자	6,691,671	6,895,035	6,904,813	213,142	3.2	9,778	0.1
여 자	4,279,054	4,526,265	4,527,763	248,709	5.8	1,498	0.0
취득자	536,785	436,274	537,631	846	0.2	101,357	23.2
상실자	527,700	402,459	515,197	-12,503	-2.4	112,738	28.0

주: 피보험자 통계는 상시근로자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7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 직업능력개발사업 건수는 11만 8천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5% 증가

- 세부 사업별로는 근무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 전년 동월 대비 46.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37.1%), 유급휴가훈련(2.7%)도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임.
- 내일배움카드제는 재직자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10.8%가 감소하였으나 실업자에서는 55.1% 증가함.

표 24. 직업능력개발사업 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2.7	2013.6	2013.7		2013.7월 누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체	80,727	98,769	118,227	46.5	19.7	678,623	
직업능력개발훈련	23,373	21,658	32,052	37.1	48.0	155,106	
유급휴가훈련	488	290	501	2.7	72.8	2,753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14,802	18,880	21,671	46.4	14.8	125,420	
내일배움카드제	재직자	1,922	1,555	1,715	-10.8	10.3	11,581
	자영업자	0	18	12	-	-33.3	86
	실업자	40,142	56,368	62,276	55.1	10.5	383,677

주: 1)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의 지원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일반회계 등을 포함하는 타기관의 통계수치와 다를 수 있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7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 직업능력개발사업 금액은 654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7% 증가

- 세부 사업별로는 유급휴가(29.1%)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107.7%),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6.8%, 실업자: 58.6%)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직업능력개발훈련(-4.6%)은 감소함.

표 25. 직업능력개발사업 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7	2013.6	2013.7		2013.7월 누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체	55,629	47,820	65,452	17.7	36.9	340,575	
직업능력개발훈련	36,454	20,850	34,776	-4.6	66.8	157,415	
유급휴가훈련	903	460	1,166	29.1	153.7	5,704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2,663	5,115	5,532	107.7	8.2	30,992	
내일배움카드제	재직자	1,504	1,454	1,606	6.8	10.5	11,798
	자영업자	0	4	2	-	-53.7	21
	실업자	14,104	19,938	22,371	58.6	12.2	134,644

주: 1)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의 지원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일반회계 등을 포함하는 타기관의 통계수치와 다를 수 있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7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작성: 이은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with you

행복한 일자리, 역량있는 직업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행합니다